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겨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6 호 / 발행일 : 2003년 10월 26일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전도행사로 인기 가수 해바라기 콘서트가 다음 주일(11월 2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린다. 해바라기의 멤버인 이주호, 이광준 성도는 3개월전 주님의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매주일 출석하고 있다.

해바라기는 1970년대 4인조 혼성 그룹 이정선·이주호, 블루스적 음색으로 전환하기 전의 한영애·김영미로 출발해 80년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포크음악의 절정기를 구가하면서 각자의 길을

건게 되고, 1982년 이주호·유익종의 듀엣체제로 해바라기 꽃씨를 뿌리기 시작, 이광준·심명기를 거쳐 강성운·이광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 뛰어난 하모니로 80년대 이후 어덜트 컨템포러리 팝 음악의 정상에서 20여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 받고 있는 포크 그룹이다.

1984년 젊은이의 가요제 은상 수상, 1986, 1987년 KBS가요대상 수상, 1986, 1987년 연예협회 가베상 수상, 1990년 ABU 국제 가요제 대상 수상,

2001년 한국연예협회 공로상 수상하였으며 2003년 초에 미국에서 귀국, 7월부터 다시 활동을 재기하여 최근에 신곡 '아름다운 약속' '내 자유를 돌려줘요' '해지는 강변에서'를 발표했다. 대표곡으로는 '사랑으로'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어서 말을 해' '모두가 사랑이예요' '아름다운 약속' '내 자유를 돌려줘요' '해지는 강변에서' 등이 있다.

콘서트는 주님의교회 성도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가족, 친지, 친구 및 교회 주변 지역주민들이 Concert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사랑으로'를 비롯하여 최근의 신곡 '아름다운 약속'에 이르기 까지 해바라기의 주옥같은 노래와 찬양이 선사될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1부 순서로 믿지 않는 가족 초청의 시간과 식사교제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오후 5시에 지하 식당에서 아직도 교회에 와보지 못한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친지들을 초대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이것을 계기로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계획되고 있다. 식사교제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초청되는 인원이 제한되는 것은 성도들의 이해를 구한다.

성지순례단 모집

2004년 1월경에 보름의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희망하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순례단을 모집한다. 순례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의 발생지, 본산(本山)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함'이다. 이번 순례를 통해 방문하려는 곳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암몬, 모압 족속의 땅 요르단, 그리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등 3개국이다.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너무도 차이가 많은 곳 이므로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미리 역사지리적, 성경적인 공부를 통해 선이해를 쌓고 준비를 하는 것은 순례를 위한 필수과정이다.

이번 순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교우들 중 지난 1학기 「나의 성지를 찾아서」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11월말에서 12월초에 있을 성지순례공부모임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수강하신 분들과의 이해의 도를 맞추기 위함이다. 시간과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10월 12일, 성지순례 희망자의 1차모임을 통해 순례의 개요가 정해졌다. 사바나 및 사막기후인 관계로 겨울에 여행하기가 가장 적합하며, 설날이 1월 21일인 것을 고려하여 시기는 1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설날전에 귀국하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보름정도로써 순수 순례 일정은 12일간이 될 것이다.

순례단이 확정된 후 11월 2일 순례단모임을 갖고 단원중에서 총무, 회계를 선출하며 여행사를 섭외하여 진행한다. 소요경비는 1인당 23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에 성지순례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10월 26일(주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해 섬마을 '희망의집 1호' 완공



경남 마산시 진동면의 희망의집 1호가 10월 31일 정오에 완공식을 갖는다. 희망의집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집 당 약 2천 5백만원으로 1호를 우리 교회가 맡아 진행중이다. 이번에 희망의집 1호와 2호로 선정된 수재민은 경상남도 진동면 진동리 송도마을에 있는 2가구이다. 송도마을은 총 22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섬인데 섬주민 대부분이 이번에 침수피해를 당했다. 그 중 네 집이 완파되었다. 우리 교회가 건축중인 희망의집 1호 대상자인

하명선 씨(50세)는 금년 5월 암으로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바지락과 미역양식으로 살아왔다. 태풍과 해일로 인하여 집과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배가 완파되었고, 현재 살고 있던 집은 대지가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희망의집 건축은 진동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진동면 김원규 면장은 한국기독교연합회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태풍피해를 입고 어려움이 많은 가구를 한국기독교

연합봉사단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10여일이 넘게 물품 지원뿐 아니라 다양하게 복구를 도와주고 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희망의집 1, 2호를 지어 주신다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교회의 사랑이 모아지는 대로 수재민을 위한 희망의집 짓기는 계속될 것이다. 수재민을 위한 희망의집 짓기 후원구좌는 조흥은행

933-04-223-296이며, 봉사단의 연락처는 055-271-8044이다.

우리 교회에서 희망의집 1호의 건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동안 3차에 걸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지를 찾아 노력봉사를 하였다. 9월 24일~26일에 1차로 37명, 10월 1일~3일에 2차로 12명, 8일~10일에 3차로 10명이 다녀왔다. 또한 경남 마산 수재민을 위하여 가스렌지 200개, 쌀(10kg) 200포를 기증

하였고,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전국 213가구를 위한 가스난로 213대 등 총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였다. 재원은 지난 임시당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수해복구후원금 5,000만원이며,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특별헌금하였다.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 관계자들이 완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희망의집 봉사 수기

“술먹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태풍 ‘매미’로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되었다고 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 설교 중 “마산 진동면 섬마을에 가서 봉사 활동하였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했습니다.

‘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여 나도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어 15살 학생까지 포함해서 열 분이 마산 진동면 섬마을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장님, 총무님, 청년회장님, 학생, 집사님들 모두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집사님은 허리가 아프신데도 최선을 다하셨고, 여집사님 두 분은 여기저기가 아프다며 밤새 꿈 꿔셨는데 아침이 되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5살 학생은 그도 남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씩씩하게 최선을 다했고, 대장님은 세 번 다 참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내색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며, 회장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공집사님이나 박집사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가정에서는 왕자 또는 왕대접이나 왕비 대접을 받고 있을 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들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라

드립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섬마을 사람들도 어찌보면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소나마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진동면과 섬마을에는 사랑의교회 꽃말과 주님의교회 꽃말과 기독교 단체 봉사자 플랜카드가 펼쳐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섬마을에 술없이 살 수 없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마시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술먹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민들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경 집사 (6-3구역)

미국자매결연교회 피터 앤더슨 목사 3부 설교

하나님으로 당신이 가진 것을 맡껏 사용하시게 하라!

우리 안의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크게 들어 쓰심을 믿으라!

지난 주일 3부예배 설교는 미국 시라큐스 교회(우리 교회가 속한 평양교회와 자매결연 관계)의 피터 앤더슨 목사(Rev. Peter Anderson)가 ‘하나님으로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시게 하라!’ (Let God use what you have!)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앤더슨牧사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난쟁이 신드롬을 지적했다. 설교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은 오천 명이 배가 고파 잔디 위에서 굶주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인 상황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배가 파도가 심한 바다 위의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행동과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훈계하신다.

평소에 계산적이며 생각만 많고 행동이 느렸던 빌립은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 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많은 돈의 지불을 떠올렸고, 다소 행동적이었던 안드레는 한 어린 아이의 점심으로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행함은 보였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동일하게 회의한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 앞에서 해결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암담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신다. 예수님은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 앉게 한 다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각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것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고 남은 조각은 거두어 하나도 버리는 것이나 낭비가 없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리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 자리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

유아세례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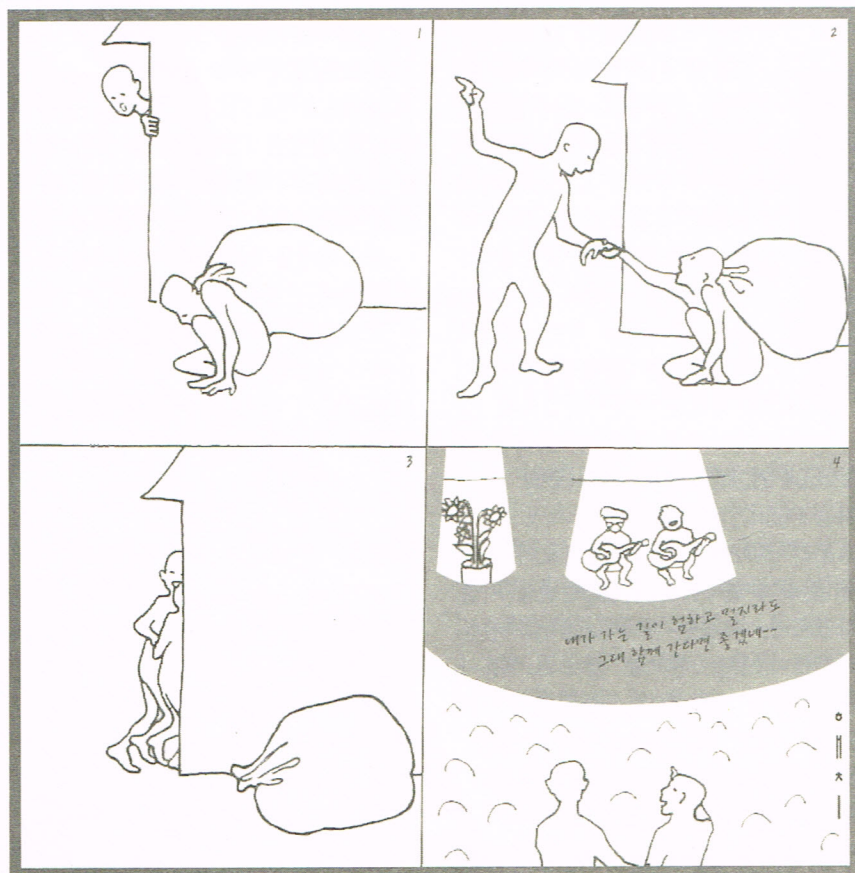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기술이다

11월 5일(수) 유아세례식을 위한 세례교육이 10월 19일(주일)~26일(주일), 2주간 오후 1시 30분 1층 자모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다. 10월 19일에는 약 3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이상훈 목사가 진행하였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배우자란 의미의 출발선상은 ‘배우자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한다’이다.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배우자간에 서로 복종하고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은 연습이며 사랑도 연습이므로 서로간의 허물을 들춰 질책하기 보다는 감싸주고 배려함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아들과 딸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생활이란 부모님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정의 경우 시집을 오는 아내는 부모를 떠나지만 남편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두 사람이 같이 부모를 떠나서 한 팀이 되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기술 혹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기도하길 당부하였다. 끝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간증문 작성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11월 5일 유아세례 시 대표 간증문으로 쓰일 것이다. / 허진기자



가운데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깊이 귀기울여야 한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요 6:20-21)

고등부 특강

큐티를 해야하는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하여'

올해 들어 학생들에게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의 훈련을 쌓게 하며 그 교재를 주일에 한번 학생과 교사가 나눔으로 공과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부에서는 10월 19일(주일)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청소년 매일성경의 편집자로 수고하고 계신 성서유니온의 탁주호 목사를 모시고 큐티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내용은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과 큐티를 통해 역사하신 여러 학교와 학생들의 예를 드시며 동기부여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강의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큐티(Quiet Time)는 성경묵상의 시간을 말한다. 불교, 기, 요가 등의 <명상>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비우는 것'을 뜻한다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이 비워질 때 성경에서는 귀신·사탄이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묵상'엔 채운다는 뜻 외에도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 '되새김질하다'의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는 큐티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제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기도는 말씀을 묵상한 후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구하라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유교·불교·샤머니즘의 요소가 섞인 기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개인 큐티, 삶

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하며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예배라는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하기 싫어하고 거절, 거역하면 바로 이것이 죄가 되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게(유기)되면 우리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 후에 장소를 옮겨 소예배실에서 모든 교우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어진 강의에는 (2주에 걸쳐 광고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40명의 교우만이 참석한 것이 여간 아쉽지 않았다.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오길 참 잘했다고 느끼셨던 것을 보면 역시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2부의 교우와 교사대상 강의에는 구체적으로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 ①준비: 장소와 시간의 확보, 교재, 필기도구 및 노트, 준비된 마음 ②읽기: 이해될 때까지 3~4회 ③묵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④적용: 3원칙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감사·죄의 고백·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고, 나에게 대하여

는 무엇을·언제·어떻게 할 것인지(구체적으로 계획) ⑤기도 ⑥나눔 등으로 설명하신 후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질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문화적 관계를 인격적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복음의 기회를 가지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들었으면

주한외국인선교부

주한 외국인에게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주한외국인선교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주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학자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6월 무지개축제가 있던 날, 일곱색깔 무지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또 다른 무지개가 주님의 교회 운동장에 가득히 펼쳐졌다. 가까이 중국에서 온 자매, 몽고에서 온 형제,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와 형제들, 러시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 남미에서 온 형제들 등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수많은 형제자매가 펼쳐진 아름다운 무지개의 울동은 정말 아름다웠다. 5대륙에서 모인 이들은 안산에 있는 '소금밭교회'의 교인들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용진 목사가 시무하시는 소금밭교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로 하는 집회의 여러 가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나를 비우고 말씀이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는 삶이 나와 우리 고등부에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모든 교우들 안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거센 부흥의 물결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권주리 교사



한국교회는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진동면에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연합활동을 펴고 있다. 아래의 글은 단장을 맡고 있는 조현삼 목사의 편지이다.

지금 경상남도 진동면에서는 희망의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로 집을 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입니다. 한국교회가 짓는 집입니다. 희망의집 짓는 이야기길 함께 나누고 싶네요.

현재 세 채를 짓고 있습니다. 1호는 15.5평입니다. 지금 내부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호는 18평입니다. 오늘 지붕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3호는 11평입니다. 나중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게 지붕을 콘크리트로 스라브를 칩니다. 지금 기초 콘크리트 양생중입니다.

1호는 전액을 한국교회가 부담해서 짓습니다. 주님의교회 후원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1호에 입주할

하명선 씨는 섬에서 세를 살다 그 집이 전파되는 바람에 갈 곳을 잃은 분입니다. 세를 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보상금도 없습니다. 건축보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1호는 건축비 전액을 한국교회가 후원해서 짓습니다. 2호와 3호는 정부에서 위로금과 건축보조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위로금과 건축보조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교회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희망의집을 짓기 위해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신 진동교회 이판상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이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희망의집 짓기는 시작할 수 없었

을 것 같습니다.

1호는 봉사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 일을 위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2호와 3호는 값을 정해 공사를 장로님에게 맡겨드렸습니다. 2호와 3호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고 정한 지원액수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로님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희망의집 짓기는 모두 봉사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희망의집 짓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큰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할 수 있게 하셨다고 기뻐하시네요. 희망의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득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현삼 목사 올림

안내 및 찬양을 위해서 이진원 집사, 박형기 집사, 최명숙 집사, 임채권 집사가 통역봉사와 함께 차량봉사, 식사봉사, 상담 등 많은 일들을 힘들다는 내색도 안하시고 수고해주시고 있다. 근래 세네갈형제가 급성뇌중양으로 쓰러져서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당부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으로 점차 선교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내의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 초청의 밤에 서울대학교 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지원하였다.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로서 연구와 학위를 마치고 가면 자국의 복음화에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다.

주한외국인선교부에서는 배움을 위하여 어렵게 한국을 택하여 온 수많은 외국인 학자와 유학생들 중에서 누구를 선정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숙소 문제와 등록금, 생활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단기적인 장학금 형식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교회에서 쉼터나 사랑의집과 같은 숙소를 통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최근 교회에서 영어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학자와 유학생들에 대한 모임과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 주한외국인선교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학자들에 대한 선교보다는 주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을 할 계획이며, 교회안팎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나영일 집사



